

백화점 “1020세대를 잡아라”

불황에 주 소비층 부각...스마트폰 활용 소통 강화 애니팡 대회·행운트럭·페이스북 이벤트 등 인기

지역 백화점업계가 불황에 따른 매출 향상을 위해 1020세대의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민 모바일 게임으로 등극한 ‘애니팡’ 게임대회를 열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해 길거리에서 직접 선물을 주는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색 마케팅을 강화해 젊은층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도킹 오디오, 브라운니 인형, 스타벅스 텀블러 등 젊은층이 좋아하는 선물을 ‘행운트럭’에 실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예고한 장소로 찾아가 참여 고객에게 선물을 직접 증정하는 이벤트였다.

이날 ‘행운트럭’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젊은층 고객들의 행렬이 이어

졌으며, 준비한 물량(1500개)이 전부 소진되는 등 반응이 좋았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창사 기념 이벤트로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했다. 가족, 애인, 친구 등 평소 마음에 담아뒀던 고백의 글을 11일까지 페이스북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영화예매권 등을 증정하는 행사였다.

백화점이 젊은층 고객을 잡기 위해 이같이 노력하는 이유는 지금의 10~20대가 미래의 주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백화점의 젊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미래

잠재고객으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일본 백화점이 젊은 고객을 잡지 못해 노후화하고 있다는 게 백화점 업계의 설명이다.

지역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10~20대 등 젊은 고객들의 소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향후 주요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게 된다”며 “이들에게 각 백화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백화점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젊은 층’과 관련된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국민 모바일 게임 ‘애니팡 최고수 찾기’ 예선전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자동차 할부금융의 모든 것

금감원 “소비자 리포트 2호 곧 발표”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모든 것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가 나온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자동차 구매 금융상품을 제2호 금융소비자 리포트의 주제로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제1호 리포트는 ‘퇴직연금’이었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지난해 등록된 자동차 485만6000대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만4000대가 이용할 만큼 상용화했다.

그러나 중고차 구매시장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할부금융 상품의 금리·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상품비교도 어려워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달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게 권 원장의 지적이다.

리포트에는 자동차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역·회사별 할부금융 상품 소개와 장단점을 담을 계획이다.

권 원장은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카드·은행 대출 중 어느 것을 이용하면 좋은지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리포트는 다음 달 말 나온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된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프트웨어’ 개혁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감독 실패 사례가 나올 때마다 체계 개편이 논의되는데도 잘 못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선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감독실패 사례로 언급되는 저속은행 사태도 사실은 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감독기관 종사자와 금융회사 경영자의 사고와 의식, 관행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외형 위주의 영업경쟁 관행과 단기적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 감독기관 종사자의 소비자 의식 부족 등이 진짜 문제”라며 “소비자보호 기능이 진실되게 작동하고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소프트웨어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소비자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혁해야 소비자보호가 강화하는 금융감독이 이뤄질지 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 中企 20% “환율하락 무방비”

#. 북미와 EU(유럽연합) 등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광주의 S사의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환율이 급변하면서 수출 계약 후 대금회수 기간(통산 3개월~1년) 동안 상시적으로 환위험에 시달렸다. 하지만 최근 중기청을 통해 환위험 상환을 받고,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 환차손을 최소화했다.

수출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환율하락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수출지원센터가 지방의 수출 중소기업 402개사를 대상으로 환율 변동 대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21.8%가 환율하락에 대비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환변동 보험 가입이나 선물환 헤지 등 환율변동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각각 11.4%와 7.8%였다.

환율 하락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응답 기업의 43.7%는 수출품 가격 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채산성 악화와 신규 거래처 발굴 애로가 각각 31.5%와 10.2%로 뒤를 이었다.

중기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내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환위험 관리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우수 기업의 사례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오는 30일 광주전남중기청 대강당에서 환리스크 관리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문의 062-360-919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세 자영업자에 年 3천억 대출 금융권 연내 3400명 감축

캠코, 바퀴드림론 출시...15만명 혜택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바퀴드림론’이 영세 자영업자 전용으로 매년 3000억원씩 공급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바퀴드림론을 오는 12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바퀴드림론에서 연간 1000억원씩 영세 자영업자에 주어 지던 저금리 전환 혜택이 연간 3000억원으로 커진다.

영세 자영업자 바퀴드림론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총액 한도대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캠코는 바퀴드림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15만명일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도가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도와 관계없이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문의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1397)’,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금융사들이 극심한 경기 불황의 여파로 올해 최대 3400명가량의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 보험, 카드사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연초부터 상시 인력 조정을 해왔으며 연말에 희망퇴직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력 감축 규모는 외국계를 포함한 은행이 1800여명,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가 600여명, 카드·캐피탈이 1000여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금융권 종사자 17만여명의 2%에 해당한다. 2010년과 2011년의 5000여명보다 작은 규모다. 지난 2년간 이미 많은 인

력을 줄여 올해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연말까지 200여명을 희망퇴직시키기로 했다. 희망퇴직 카드를 꺼낸 것은 4년 만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희망퇴직으로 500여명을 줄였고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추가로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업계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손보업계 빅4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은 연말까지 자연 감소분을 제외한 인력 감축을 거의 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카드사 멋대로 부가서비스 변경 금지

공정위, 약관 시정 요청

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약관이 개정된다. 리볼빙 서비스의 약정결제비용을 카드사가 자의대로 변경하는 것도 제동이 걸린다. 카드사가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제공할 개인정보도 특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유형의 약관을 11개 유형으로 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요청 사항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된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꼽은 대표 사례는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자유롭게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엔 부가서비스 변경은 천재지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소비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약관도 개정된다.

/연합뉴스



여행을 통한 아름다운 만남..
정남진투어
문의전화 1577-7616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정남진투어 검색을 하세요!

Event 정남진 투어 공짜 이벤트!!!

선착순 1일 5명 공짜!

2012년 11월 19일 ~ 12월 20일까지
주중항차 *금토장흥/일성산출항 항차는 제외

선착순 3,000명 (사전예매자에 한함) 하루에 5명씩 적용-!!
일반실 편도 ₩9,000 적용 (항만세 별도)

정남진투어 이용시 20% 항시 할인~!!
선박최고 40%/노력항까지 버스임대 50% 할인~!!!

차량무료 선적 3명 예약시 1600cc 미만
차량 무료 이벤트 중복은 불가



오렌지호 장흥↔제주

제주 한라산 산행	99,000
제주 1박 2일투어	119,000
제주 2박3일 투어	139,000